

# 시어의 감각

---

1.  
아침 저녁으로 샛강에 자욱히 안개가 낀다.

2.  
이 읍에 처음 와본 사람은 누구나  
거대한 안개의 강을 거쳐야 한다.  
앞서간 일행들이 천천히 지워질 때까지  
쓸쓸한 가축들처럼 그들은  
그 긴 방죽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문득 저 홀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  
간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

어떤 날은 두꺼운 공중의 종잇장 위에  
노랗고 딱딱한 태양이 걸릴 때까지  
안개의 군단(軍團)은 샛강에서 한 발자국도  
이동하지 않는다.  
출근길에 늦은 여공들은 깔깔거리며 지나가고  
긴 어둠에서 풀려나는 검고 무뚝뚝한

나무들 사이로  
아이들은 느릿느릿 새어나오는 것이다.  
안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 얼마 동안  
보행의 경계심을 늦추는 법이 없지만, 곧  
남들처럼  
안개 속을 이리저리 뚫고 다닌다. 습관이란  
참으로 편리한 것이다. 쉽게 안개와 식구가 되고  
멀리 송전탑이 희미한 동체를 들어낼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흘러다닌다.

가끔씩 안개가 끼지 않는 날이면  
방죽 위로 걸어나가는 얼굴들은 모두 낯설다.  
서로를 경계하며  
바쁘게 지나가고, 맑고 쓸쓸한 아침들은 그러나  
아주 드물다. 이곳은 안개의 聖域이기 때문이다.

날이 어두워지면 안개는 샛강 위에  
한 겹씩 그의 빠른 옷을 벗어 놓는다. 순식간  
에 공기는  
희고 딱딱한 액체로 가득 찬다. 그 속으로  
식물들, 공장들이 빨려 들어가고  
서너 걸음 앞선 한 사내의 반쪽이 안개에 잘  
린다.

몇 가지 사소한 사건도 있었다.  
한밤중에 여직공 하나가 겁탈당했다.  
기숙사와 가까운 곳이었으나 그녀의 입이 막  
히자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난 겨울엔  
방죽 위에서 취객(醉客) 하나가 얼어 죽었다.  
바로 걸을 지난 삼륜차는 그것이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것은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

안개가 걷히고 정오 가까이

공장의 검은 굴뚝들은 일제히 하늘을 향해  
젖은 총신(銃身)을 겨눈다. 상처 입은 몇몇 사  
내들은  
험악한 욕설을 해대며 이 폐수의 고장을 떠나  
갔지만  
재빨리 사람들의 기억에서 밀려났다. 그 누구  
도  
다시 읊으로 돌아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3.  
아침 저녁으로 샛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안개는 그 읊의 명물이다.  
누구나 조금씩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를 공장으로 간  
다.

- 기형도, <안개>

# 통상적으로 학습한 이미지

---

1. 넓은 의미의 시나 그 밖의 문학 작품에서 축어적으로 묘사되거나 암시 또는 직유, 은유에 사용되는 보조관념들. **감각적 지각**의 모든 대상과 특성.
2. **좁은 의미의 시각적 대상이나 장면의 묘사**
3. 비유의 보조관념

관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 내리듯.  
주여  
용납하옵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에 흠을 받아  
좌르르 하직했다.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형님!  
불렀다.  
오오냐. 나는 전신으로 대답했다.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이제

네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스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 박목월, <하관>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이미지를 해석하는 오류

## 이미지와 사물의 동일시

- 단순한 제재로서 시적 대상을 보는 일
- 대상이 신체에 기입되면서 산출되는 과정으로서의 이미지를 무관한 것으로 인식

## 이미지를 상승과 하강, 수렴과 확산 같은 움직임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 이미지를 단순한 개념(이성)에 종속시키는 일

## 이미지를 이항대립적인 의미로 배열하는 것

- 이미지를 둘로 나누고 긍정과 부정의 의미소를 덧붙이는 상투화된 인식

원편으로 구부러진 길, 그 막다른 벽에 긁힌  
자국 여럿입니다

깊다 못해 수차례 스치고 부딪친 한두 자리  
는 아예 음합니다

맥없이 부딪쳤다 속상한 마음이나 챙겨 돌아  
가는 괜한 일들의 징표입니다

나는 그 벽 뒤에 살았습니다

잠시라 믿고도 살고 오래라 믿고도 살았습니  
다

굳을 만하면 받치고 굳을 만하면 받치는 등  
뒤의 일이 내 소관이 아니란 걸 비로소 알게  
됐을 때

마음의 뼈는 금이 가고 천장마저 헐었는데  
문득 처음처럼 심장은 뛰고 내 목덜미에선  
난데없이 여름 냄새가 풍겼습니다.

- 이병률, <사랑의 역사>



아파트 입구에 내놓은 교자상이 비에 젖고 있다  
지금 빗물은 호마이카 상판 위에 고여 있지만  
모서리 틈새나 못 빠진 자국 찾아 들어갔다  
햇빛 나면 습기 되어 빠져나갈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든 새댁이 관리실 앞을 지나며 경비  
노인에게 인사한다 거의 눈짓에 가까운 인사, 약간  
입술을 오므리고 포도 씨 같은 것을 뺄듯 그렇게  
하는 인사, 물 위를 스치는 잠자리 날개 같은 인사  
나의 웃음도 그렇게 올라타고 싶구나 물 위를 스치는  
잠자리 날개에 제 날개를 포개는 잠자리 수컷처럼  
이제는 동네 슈퍼로 들어가버린 여인, 생각해보라,  
술은 술 노래를 모르고 나는 당신을 모른다는 것

흑반(黑斑) 잔뜩 끼어 죽어가는 난 앞 어루만지며  
베란다 밖을 살핀다.  
저녁 비가 눈으로 바뀌고 있다  
주차장에 누군가 차 미등 켜논 채 들어갔나,  
오른쪽 등 껌질이 깨졌는지  
두 등 색이 다르다  
안경을 한번 벗었다 다시 낀다  
눈발이 한번 가렸다가  
다시 빨갛고 허연 등을 켜놓는다  
난 앞을 어루만지며 주인이 나오기 전에  
배터리 닳지 말라고 속삭인다  
다시 만날 때까지는  
온기를 잃지 말라고  
다시 만날 때까지는  
눈감지 말라고  
치운 세상에 간신히 켜든 불씨를  
아주 끄지 말라고  
이 세상에 함께 살아 있는 그 무엇의,  
  
난이 점차 뜨거워진다.

- 황동규, <퇴원 날 저녁>

## 강아지풀

박용래

남은 아지랑이가 훌훌  
타오르는 어느 역 구  
내 모퉁이 어메는 노  
오란 아베도 노란 화  
물에 실려 온 나도사  
오요요 강아지풀. 목  
마른 침목 싫어 뺨  
걱 뺨걱 여닫는 바람  
소리 싫어 반딧불 뿌  
리는 동네로 다시 이  
사 간다.다 두고 이  
슬 단지만 들고 간다.  
땅 밑에서 옛 상여 소  
리 들리어라. 녹물이  
든 오요요 강아지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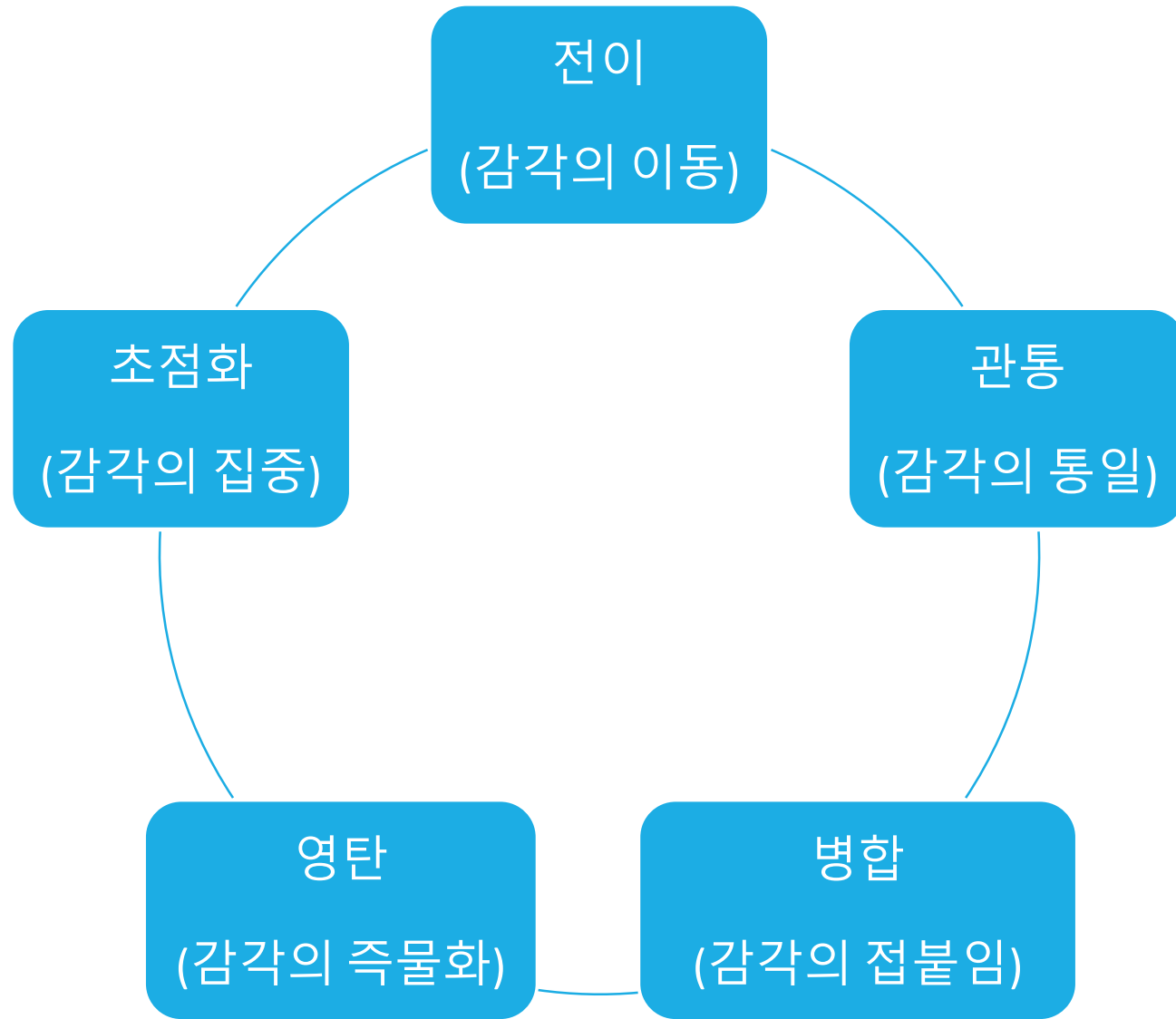
## 아무도 울지 않는 밤은 없다

이면우

깊은 밤 남자 우는 소리를 들었다 현관, 복도, 계단에 서서 에이 울음소리  
아니잖아 그렇게 가다 서다 놀이터까지 갔다 거기, 한 사내 모래바닥에 머리  
처박고 으니, 으니, 가로등 없는 데서 제 속에 성냥불 켜대듯 깜박깜박 운다 한참  
묵묵히 섰다 돌아와 뒤척대다 잠들었다.

아침 상머리 아이도 엄마도 웬 울음소리냐는 거다 말 꺼낸 나머지 문득 그게  
그럼 꿈이었나 했다 그러나 손 내밀까 말까 망설이며 끝내 깎지 못 푼 팔뚝에  
오소소 돋던 소름 안 지워져 아침길에 슬쩍 보니 바로 거기, 한 사내 머리로 땅을  
뚫고 나가려던 흔적, 동그마니 패었다.

# 이미지의 구현 방식







499 / 499  
97 / 121



정글

집

■ 사유지에 간이천막 ?  
짓기

김병만



WIFI 11:38

Lv. 19 38.1%



# 이미지(image; 개념, 상징)

---

이미지의 어원에 해당하는 라틴어 'imago'는 환영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개념 또는 관념이라는 의미도 발달시켰다.

이미지의 신체적인 의미는 17세기까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16세기 이후 주로 정신적인 사항을 가리키는 좀 더 넓은 의미가 확립되었고, 17세기가 되면 쓰거나 말하기에서 '비유적 표현'을 일컫는 문학 논의로 전문화된 중요한 용법도 등장했다. 마음에 그리는 심상이라는 일반적 의미는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문학 전문 용어로도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법 모두가 선전 활동과 관련된 용법의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졌다. 실제 의미는 상업적인 브랜드 이미지나 정치가의 이미지 관리 같은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인지된 평판을 나타낸다. 그 전에 이미 문학과 회화에서 묘사를 일컫는 이미지의 의미는 변화를 거듭했으며 영화 구성의 기본 단위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 종이 위로 올라와야 한다. 종이를 맞바라보면서 거기에 찍힌 글자들을 읽으려 하지 말고, 어서 이 흰 종이 안으로 들어오기 바란다. 걸터다니는 글자들과 만나서 사귀거나, 글자들의 몸과 비비고, 글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아니면 생전 처음 보는 새 글자를 세우거나, 글자를 낳거나, 글자를 먹어보기 위해서.

이 종이의 가장자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종이를 둘러싸고 입체의 투명한 물질이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이 종이 안에 들어오려고 마음먹는다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이 투명한 장애물은 어떤 누구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곳이 수련의 자리임을 표시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수련, 睡蓮, nenuphar(이 발음하기도 힘든 불어는 모네Monet의 수련이다).  
만약, 수련을 사랑한다면  
수련을 갖고 싶을 것이다. (옷을 조금 적시거나 물에 빠질 위험을 감수한다면, 연못에 가서 꺾으면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수련을 갖지 못한다. 꺾어온 수련은 금방 물이 빠져 말라비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과 떨어져 있는 수련이라니! 그건 수련이 아니다. 또한 이런 방식이 이 종이 안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다.)

수련을 사랑했던 모네  
모네는 수련의 육체를 가졌다.





2000년 4월 어느 날,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앞에서 지하로 뚫린 전철역 입구를  
내려가다가, 한없이 내려가다가, 그 가장  
아래 계단 오른쪽 구석에서 당신은,

당신이 생애 단 한번도 보지 못한 꽃이 돌  
틈으로 피어나는 광경을 목도한다. 당신이  
본 것은 피어난 꽃이 아니라 꽃의 피어남,  
그러므로 믿을 수 없는 것은 한없이 지하로  
뚫린 4월의 아침이었다.

그 꽃  
이미지에 의해 당신은, 한 순간 굳어버린다.  
그때는 당신의 시계가 AM07:45에서

깜박이고 있던, 그것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당신을 깜박이게 하고 있던, 그 박동속으로  
저속 촬영의 사람  
이미지들이 흘러다니던,

그런 시간이었다. 문득 멈춰선 당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당신은, 아무도 모르게,  
피어나는 꽃의 이름을 부른다. 당신의  
입에서 지나치게 낮선 발음으로 흘러나온  
그 이름은 언젠가, 아주 오래전 언젠가  
오랫동안 그리웠던 것이었지만, 그 그리움에  
의해 잠시 정겨웠다는 사실만을 기억할 수  
있을 뿐.



당신은 그 이름 앞에 잠시 망연하다.  
그리하여 꽃  
이미지가 이루는 한 세상 앞에서 당신은,  
당신을 스쳐간 수많은 현현의 순간에 대해  
생각한다. 가령 어떤 적요의 풍경; 하오의  
잡담 속에서 문득 떠오른, 아주 오래전 어느  
새벽의 거리의 느낌; 새벽 거리의 저 끝에서  
고독한 자세로 천천히 다가오던, 안개의  
향기, 드디어 당신은 약간 웃는다.

그리하여 4월 어느 날 아침 지하철역의  
당신은, 천천히 꽃  
이미지를 향해 다가간다. 다가가서, 사람들  
이미지와 꽃  
이미지 사이에 선 당신은, 고요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꽃, 그 유현한 피어남을 꺾는다.

누군가 당신을 보았다면 <잔인하다>고  
말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잠깐 흘러가는  
풍경처럼 웃는 당신 꽃  
이미지를 지하의 허공에 흩뿌리는 당신.  
망연히 웃으며 천천히 굳어가는 사람처럼.

- 이장욱, <꽃과 그림자>

사춘기의 나날, 유일한 낙이 있었다면  
오르넬라 무티, 린제이 와그너, 엘리다 벨리.....  
세운상가 다리 위에서 이방의 여배우 이름이나  
뇌까리는 것,

세운상가, 욕망의 이름으로 나를 찍어낸 곳  
내 세포들의 상점을 가득 채운 건 트레이시와  
치치올리나,  
제니시스, 허슬러, 그리고 각종 일제 전자 제품들,  
세운상가는 복제된 수만의 나를 먹어치웠고  
내 욕망의 허기가 세운상가를 번창시켰다

후미진 다락방마다 돌아가던 8미리 에로티카  
문화영화  
포르노의 세상이 내 사랑을 잠식했다  
여선생의 스커트 밑을 집요하게 비추던 손거울과  
은하여관 2층 창문에 매달려 내면의 음란을  
훑쳐보던  
거울의 포로인 나, 오 그녀는 나의 똥구멍  
가끔은 서양판 변강쇠 존 홈스가  
나의 귀두에 다마를 박으라고 권했다

금발 여배우의 매혹이 부풀린 영화감독이라는 욕망,  
진실은 없었다, 오직 후끼된 진실만이 눈앞에  
어른거렸을 뿐

네가 욕망하는 거라면 뭐든 다 줄 거야  
환한 불빛으로 세운상가는 서 있고  
오늘도 나는 끊임없이 다가간다 잡힐 듯 달아나는  
마음 사막 저편의 신기루를 향하여,  
내 몸의 내부, 어두운 욕망의 벌집이 웅웅댄다  
그렇게 끝없이 웅웅대다가 죽음을 맞으리라  
파열되는 눈동자, 충동의 벌떼들이 떠나가고  
비로소 욕망의 거울은 나를 놓아줄 것이다

- 유하, <세운상가 키드의 사랑2>



광고의 나라에 살고 싶다  
사랑하는 여자와 더불어  
아름답고 좋은 것만 가득 찬  
저기, 자본의 에덴동산, 자본의 무릉도원,  
자본의 서방정토, 자본의 개벽세상-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휴먼테크의 아침 역사를 듣  
는다 르네상스 리모컨을 누르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휴먼퍼니처 라자 침대에서 일어나 우라늄으로  
안전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토피아의 전등을 켜고  
21세기 인간과 기술의 만남 테크노피아의 냉장고를  
열어 장수의 나라 유산균 불가리~스를 마신다 인생  
은 한 편의 연극, 누군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  
고 싶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자는, 드봉 아르드포 메

이컵을 하고 함께 사는 모습이 아름답다 꿈빠니아  
패션을 입는다 간단한 식사 우유에 켈로크 콘프레  
이크를 먹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는  
명작 커피를 마시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할말은  
하고 쓸 말은 쓰겠다는 신문을 뒤적인다 호레이 호  
레이 투우의 나라 쓸기담과 비가 와도 젖지 않는 험  
립 우산을 챙기며 정통의 길을 걸어온 남자에게는  
향기가 있다는 리갈을 트럼펫 소리에 맞춰 신을 때  
사랑하는 여자는 세련된 도시감각 영에이지 심플리  
트를 신는다 재미로 먹는 과자 비틀즈와 고래밥 걸  
은 부드럽고 속은 질긴 크리넥스 티슈가 놓여 있는,  
승객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제3세대 승용차 엑셀  
을 타고 보람차고 알찬 주말을 함께 하자는 방송을  
들으며 출근한다

제1의 더툼보이가 거리를 질주하오

천만번을 변해도 나는 나

제2의 아모레 마몽드가 거리를 질주하오

나의 삶은 나의 것

제3의 비제바노가 거리를 질주하오

그 소리가 내 마음을 두드린다

제4의 비비안 팜팜브라가 거리를 질주하오

매력적인 바스트, 살아나는 실루엣

제5의 캐리어쉬크 우바가 거리를 질주하오

오늘 봄바람의 이미지를 입는다

제6의 미스 빅맨이 거리를 질주하오

보여주고 싶다 새로운 느낌 새로운 경험

제7의 라무르 메이크업이 거리를 질주하오

나의 색은 내가 선택한다

제8의 주단학세렉션의 거리를 질주하오

나의 색은 내가 선택한다

제9의 캐리어가 거리를 질주하오

남자의 가슴보다 넓은 바다는 없다

제10의 마리떼프랑소아저버가 거리를 질주하오

거침없는 변혁의 몸짓

제11의 파드리느가 거리를 질주하오

지금 그 남자의 지배가 시작된다

제12의 르노와르 돈나가 거리를 질주하오

오늘, 이 도시가 그녀로 하여 흔들린다

제13의 피어리스 오베론이 거리를 질주하오

살아 있는 것은 아름답다



자연은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 후손에게 차용한 것이라고 말하는 공익광고협회의 저녁 뺨에서 행굼까지 사랑이란 이름의 히트 세탁기를 돌리고 누가 끓여도 맛있는 오뚜기 라면을 끓이려다가 지방은 적고 단백질이 많은 로하이 참치를 끓인다 그리운 사람에게 사랑이란 말은 더 잘들리는 하이폰 전화 몇 통 식후 은행앞에서 추출한 혈액순환제 징코민 한 알 미련하게 생긴 사람들이 광고하는 소화제 베아제 광고가 나오는 대우 프로비전 티브이를 끄고 백년도 못 살면서 천년의 고민을 하는 중생들이 우습다는 소설 김삿갓 고려원을 읽다가 많은 분들에게 공급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썸씽스페셜을 한잔 하고 그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패션의 시작 빅맨을 벗고 코스코스표 특수형 콘돔을 끼고 잠자리에 든다

아아 광고의 나라에 살고 싶다  
사랑하는 여자와 더불어  
행복과 희망만 가득 찬  
절망이 꽃피는, 광고의 나라 .

- 함민복, <광고의 나라>



# 참고문헌

---

레이먼드 윌리엄스, 김성기, 유리 역, 《키워드》, 민음사, 2010.

권혁웅, 《시론》, 문학동네, 2010.

박진.김행숙, 《문학의 새로운 이해》, 민음사, 2013.

오규원, 《현대시작법》, 문학과지성사, 1990.